# 5·18 조사위, 신군부 핵심 본격 조사

## 정호용 전 사령관 등 당시 지휘관급 인사 대상
## 전일빌딩 추가 탄흔 발견…사격 지휘 구조 파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압작전과 관련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당시 군 지휘관급 인사들을 본격 조사한다.

또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탄흔을 추가 발견해 헬기사격 구조와 명령 체계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조사위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조사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1980년 5월19일 광주고교 앞 발포를 수사한 검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구심을 품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11공수부대 소속 차모 대위가 장갑차를 공격하는 시위대에게 우발적으로 위협 사격을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조사위는 당시 장갑차에 왜 실탄이 실려 있었고, 대위 계급이 상부에 보고 없이 총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군부가 21일 옛 전남도청 앞 조준사건과 관련해 '자위권 차원의 우발적인 발포'라고 펼친 주장에 대해서도 실탄 배포 과정과 연관해 검증하고 있다.

조사위는 이를 통해 각 발포에 대해 누가 어떻게 법적·실질적 책임을 질 것인지 판단할 계획이며,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 중 유일하게 생존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군 지휘관급 인사들에 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대상은 진압 작전 명령서를 기안하거나 직접 작전에 출동한 대대장급 이상 군인 27명과 보안사령부 핵심 참모 등 13명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내년 6월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전일빌딩 8층과 10층에서 추가 발견한 탄흔 추정 흔적도 면밀히 살핀다.

이번에 발견된 흔적은 최근 조사위가 탄흔의 각도와 크기, 입·출사 방향 조사를 위해 10층 기둥 일부의 수성 페인트를 제거하면서 드러났다. 흔적은 8층 기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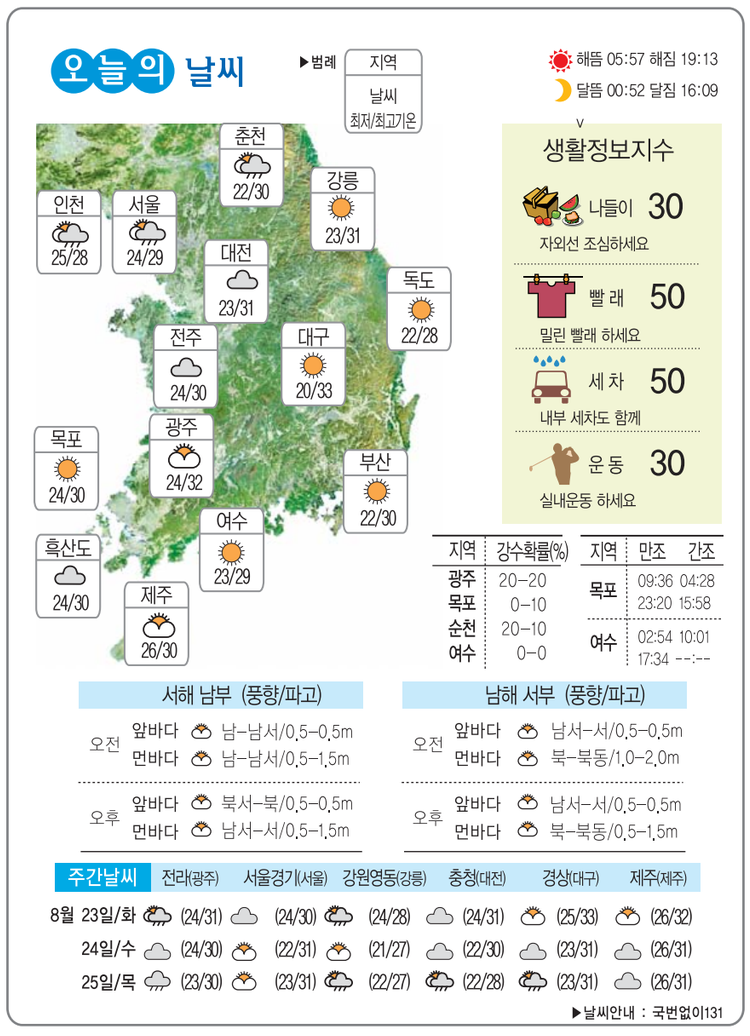
이 탓에 조사위는 헬기 사격에 의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탄분포가 전일빌딩 진압 작전 당시에도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1980년 5월27일 11공수여단이 전일빌딩 점령을 위해 특공 작전을 펼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비행·정비기록부 등을 통해 계엄군 헬기사격의 지휘 구조와 명령 체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사위는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 등 총 51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부대 이동 동선과 배치장소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등 책임자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더위 날리는 폭포수** 막바지 휴가철인 21일 오전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쏟아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날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




# 한국 역사 배우는 '5·18아카데미' 열린다

## 5·18기념재단, 오늘부터 6일간 진행…9개국 12명 참가

5·18기념재단은 '2022 5·18아카데미'를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004년 시작된 5·18아카데미는 전 세계 NGO 및 민주·인권·평화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선발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롯,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시민 활동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5·18아카데미는 'Incomplete Movement: Understanding South Korea Democracy and Civil Society Activities'(미완의 운동: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동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된다.

5·18아카데미에서는 실제 활동가의 강연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흐름과 한국 시민사회가 어떤 이슈를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 등을 학습할 수 있다.

5·18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강의에는 제2강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흐름'에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제 4강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 제5강 '참여연대의 활동'에 참여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 제6강 '제주4·3사건'에 허호준 기자가 강연자로 참여한다.

총 22명이 지원한 이번 5·18아카데미에는 총 9개국 12명의 참가자(동티모르 2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2명, 네팔 1명, 탄자니아 1명, 몽골 1명, 캄보디아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베트남 1명)가 선발됐다.

국내 유학생 및 해외 참가자로 구성된 이들은 영상 및 대면 강의, 5·18민주묘지 참배, 5·18사적지 탐방, 문화 체험, 제주4·3평화공원 전시 관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룹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하는 5·18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과 민주·인권·평화 이슈를 다루고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장의 재기를 기원하며 5·18의 세계화를 위한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 "직장 괴롭힘 방치 회사에 면죄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세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21일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는 ▲지체 없는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회사가 신고를 방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 조항이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세운 내부지침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직장갑질119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체 없는 조사'를 위반할 경우 25일 이내의 시정기한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 /연합뉴스

# 광주시교육청, 오늘부터 2022 을지연습

광주시교육청이 22일부터 4일간 '교육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15개 기관 총 974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22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판단회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절차 숙달을 위한 도상연습, 학교 재배치 훈련 등 실제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등이 실시된다.

특히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을 고려해 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연습 참가자가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사전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국가비상사태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교교육 운영 등 교육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이번 을지연습에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 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현장점검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하면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조선·건설업 등 업종별,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계층별로 대상을 세분화해 현장을 촘촘하게 살필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 준수를 집중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체불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조선업 밀집 지역, 건설 현장 등은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해 주는 돈) 조기 집행 등으로 체불을 예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